이차돈 순교비 제막 경주흥륜사 추모법회

이차돈성사 순교1472주기 추모법회 및 순교비 제막식이 14일 오전10시 경주 천경림 흥륜사(주지 혜해)에서 봉행됐다.

이날 제막식〈사진〉에는 동화사조실 진제스님을 비롯 제주 약천사회주 혜인스님,이용택 경주관광개발공사사장,김백기 경주시문화관광국장등 사부대중7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제막된 높이6m의 순교비는 연화와 구름문양이 장식되어 있는등 신라전통형식과 현대기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순교비는 또 경주 남산에서 채취한 화강암 원석으로 조성됐으며 지난97년 7월부터 1억5천만원을 들여 제작됐다.

진제스님은 법어를 통해 "마음을 바로 살펴 진리의 눈을 뜨는 것이 참다운 공부"라며 "이차돈성사는 부처님의 해탈법을 만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순교의 길을 택하신분"이라고 성사의 큰 뜻을 기렸으며 이에 앞서 혜해스님은 인사말에서 "불교문화를 신라에 꽃피울수 있게한 성사의 뜻을 오늘에 되새기기 위해 순교비를 건립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명절이 오히려 서글퍼요"

소쩍새마을 · 보현의 집등 찾는 이 없어
장애인 · 노숙자등 올해도 '쓸쓸한 추석'

소쩍새마을의 3급지체장애인 이모씨(35)는 명절이 싫다. 가족도 없고 평소보다 사람구경하기도 더 힘들다. 늘상 느끼는 외로움이지만 명절때만 되면 쓸쓸함을 달래기가 더욱 힘들다.

명절때만 되면 되레 발길이 끊기는 곳. 그래서 더욱 사람냄새가 그리운 곳. 아이엠에프가 채 끝나지 않아서일까,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와도 교계 복지시설에는 찾는 발길이 별로 없다.

강원도 원주 소쩍새마을은 추석이 다가오자 마치 정전된 마을같은 적막감이 흐른다. 평소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의 방문으로 북적거렸지만 명절이 다가오면서 지역 인사들의 방문도 끊겼다. 그래서인지 장애인과 노인, 고아 등 2백50여 소쩍새마을 가족들은 풀이 죽은 모습이다. 추석날 차례도 지내고 법회도 가질 예정이지만 명절때마다 겪는 쓸쓸함을 올해 또 맛볼 생각을 하니 도무지 흥이 나질 않는다.

영등포 보현의 집엔 생활형편이 어려운 1백60여명의 일용직 · 공공근로자들이 모여 산다. 이들은 대부분 가족이 있지만 명절때 고향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작년 추석때는 정부에서 차량을 지원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올해 그런 것도 없다. 시에서 개인당 1만원씩의 추석지원금이 나왔지만 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마주보고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정이다. 그렇지만 명절을 앞두고 이곳을 방문한 단체나 사람들은 거의 없다. 서계동 보현의 집도 사정은 비슷하다. 60여명의 노숙자들은 온종일 서로 얼굴만 마주보며 명절을 보내야 할 처지다. 관심을 가져주는 이도, 찾는 이도 없다.

경불련 아침을 여는 집의 20여 노숙자들도 쓸쓸한 추석을 맞기는 마찬가지다. 간혹 있던 지역 단체들의 방문도 명절을 앞두고는 뚝 끊겼다. 오갈데 없는 이들에겐 명절이 마치 형벌처럼 느껴진다. 가족이 있지만 갈 수 없는 처지라 더욱 사람들이 그립다.

일본군위안부였던 할머니들이 모여사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도 할머니들끼리 추석음식을 준비하고 차례를 지내야 할 형편이어서 이래저래 쓸쓸한 명절을 보내게 됐다.

강원도 속초 반야노인요양원의 30여 노인들은 차례조차 지내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 요양원 재정이 열악한데다, 지역 관심이 온통 이곳에서 열리는 관광엑스포에 쏠려있어 이곳 노인들의 처지가 더욱 애처롭게 됐다.

아침을 여는 집의 이주원 간사는 "추석 당일날은 그렇다 치더라도 며칠전쯤 교계 단체들이 이런 곳을 위로방문한다면 포교에도 큰 도움이 될 텐데 오히려 갈수록 무관심해지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자비로 빚는 한가위 송편 지난 15일 길음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자원봉사자 1백여명이 참가해 '한가위 송편 빚어드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빚어진 송편은 쓸쓸한 추석을 보내야 하는 지역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보낸다.

'가지산 지키자' 걷기대회
울산 시민 5백여명 참가

가지산 사랑 범시민 환경보호 걷기대회가 12일 가지산을 사랑하는 시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석남사 주지 상운스님, 우덕삼 시민걷기대회집행위원장을 비롯 한사랑 산악회, 울산대 학술보존회, 상북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여성불자회등 시민단체와 신행단체에서 5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걷기대회에 앞서 우덕삼 집행위원장은 "태화강의 발원지인 가지산을 지키자는 시민들의 염원을 모았다"며 "가지산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가지산을 사랑하는 시민연대는 석남사 앞 식당건립 반대를 계기로 결성돼 가지산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운동으로 힘을 모아 나가고 있다.

천미회 기자
(mhcheon@buddhapia.com)

"YS 대통령 만들기 교계에 30억 썼다"
조기현씨 밝혀

92년 대선당시 조기현 前청우건설회장(전 조계종 전국신도회장)이 주도해 YS 대통령만들기에 불교계를 움직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조씨가 1일 김영삼 前대통령의 상도동자택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낸 가압류신청이 기각되면서 밝혀졌다.

조씨에 따르면 92년 가을 서의현 전총무원장과 함께 YS를 만난 자리에서 YS가 "대선에서 불교계가 도와주었으면 한다. 돈은 얼마가 들던지 조회장이 내게 빌려준 것으로 해서 서원장에게 전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또 92년 5월 노태우 전대통령도 "불교계가 87년 대선에서 나를 지지하여 대통령을 만들었듯이 YS를 적극 지지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이후 조씨와 서원장은 현금을 준비해 전국의 사찰과 신도회를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30억원의 돈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김원우 기자

교도소 합창단에 옷보시 원각종 정안스님

원각종 호남종무원(원장 정안)은 12년이나 낡은 합창단복을 입어온 광주교도소 재소자 불자들에게 새옷 25벌을 보시했다.

정안〈사진〉스님은 최근 광주교도소 불자법회에서 법사로 초청돼 갔다가 낡은 합창단복을 입은 재소자불자들이 찬불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 죄가 될 것 같아 며칠후 종도들과 함께 새 합창단복을 마련할 4백만원을 전달했다.

불자재소자합창단 이승호지휘자는 "새단복을 입고 부처님께 음성공양을 올리게돼 기쁘다"며 "우리도 출소하면 부처님처럼 자비행을 할수 있는 삶을 살자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국제포교사회 뮤지카씨 초청 '美불교현황' 워크숍

"미국인 대상 포교전략 절실"

한국 · 티벳등 7개국 전법
절 6천개 신도 4백만명
대부분 교포포교 주력

한국 불교가 세계로 뻗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조계종 국제포교사회는 15일 서울 연등국제불교회관에서 제4기 국제포교사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前 UCLA대 에드워드 뮤지카(비교종교학, 본지 238호 4면 참조) 교수를 초청, '미국내 한국불교의 현황'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에드워드 박사는 "미국에는 한국 티벳 태국 등 7개국가에서 약 6천개가 넘는 사찰을 세우고 4백만명에 이르는 불교신자가 있지만 포교 전략이 대체로 무계획적이며, 자국 불교신자들을 제외한 미국인들에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드워드 박사는 "불교와 힌두교는 빠른 시일내에 성장해 마침내 기독교를 능가하는 종교가 될 것이기에 상호 협력적 조화를 이룰 것"이라며 성공적인 해외포교를 위해서는 "깨달음을 성취하고 유머를 겸비한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하며 신문과 방송,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불교의 본질과 핵심, 수행법을 가르치는 불교교육센터의 강화가 요청되고, 자국민 보다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어 교육이 포교에 큰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드워드 박사는 "미국인들은 달라이 라마처럼 '영웅적인 스타'를 원한다"면서 "승속간의 엄격한 차별보다는 신도들에게 자비와 행운을 줄 수 있는 친근한 생활불교가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우리절 불사 성곡사 지장전

◇성곡사는 15만평 부지에 야외기도를 할수 있는 천불대참회 도량을 조성하고 있다. 사진은 지장전 전경. 원안은 주지 관묵스님.

도솔천 재현한 대참회 도량

15만평…지장상 5백불 봉불
미륵 · 천불 · 관음전 조성
내달 10일 호국영령 천도재

'야외에서 내안의 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천불대참회도량이 조성된다'

충남 공주 차령산맥 줄기 고불산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성곡사(주지 관묵)는 부지 15만평에 대불 및 천불전, 지장전, 미륵전, 관음전, 약사전, 아미타전을 건립하여 불자들의 새로운 기도처로 만든다.

성곡사는 27m 높이의 지장보살님을 본존으로 보살상의 좌대와 뒷켠에 병풍처럼 2m 크기의 지장보살상 5백불을 조성하고 10월 10일 점안식 및 호국영령천도 지장산림기도 입재법회를 갖는다.

도솔천 내원궁의 장엄함을 재현했다는 지장전은 유주무주고혼및 조상천도는 물론 불자들의 지장 기도처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장전에서는 지장보살님의 좌대안에 선망부모와 조상천도를 위한 원불과 영가위패를 모실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불사에 동참한 불자들을 위해 지장전에 1차로 1백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을 건립한 성곡사는 앞으로 대규모 묘탑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안까지 33m 높이의 미륵불을 조성하여 미륵전을 완공하고 관음전, 약사전, 아미타전의 기반공사도 진행중이다.

1980년 주지 관묵스님이 폐사지인 성곡사지에 천막을 치고 기거하며 손수 삽질과 경운기를 운전해 불사가 시작된 성곡사는 대웅전과 명부전, 용화전, 산신각, 요사채등의 건립불사를 1차 완공했다.

이어 95년 석가모니 부처님 재세시 영취산의 설법장면을 재현하기 위해 18m 높이의 청동좌불상과 2m높이의 부처님입상을 1천불 모신 대불 · 천불전을 건립해 불자들의 기도 순례지로 주목받아왔다. 문의 0416)853~3355.

특히 관묵스님은 불우어린이 및 청소년들 20여명을 사찰에서 키우고 있으며 서울 고척동에 포교당 정암사를 개원하여 도심포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주지 관묵스님은 "형상화된 불국정토 구현의 대원력을 세우고 불사에 정진해 왔다"며 "불교신행의 공간뿐 아니라 민족정체성을 회복하는 성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코스
◐아봐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밝은길 아봐타센터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삼보와 스승님께 귀의 합니다

- 석용산 스님을 매장하려 했던 모든 허황된 고소사건들이 검찰에서 모두 죄 없음을 최종 확인 -

회주 큰스님을 가까이에서 십수년을 모셔온 저희들은 스님의 일여한 모습속에서 인욕보살의 진면목을 발견 할 수 있었기에 큰스님을 감히 이 시대의 인욕보살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과 오욕을 그대로 참으시며 끝까지 부처님과 약속을(남을 다치게 하지 않겠다는) 지키시려 온갖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감내하시고 계십니다. 8월 28일 큰스님께 씌워졌던 형사 고소사건 3건이 모두 무혐의 판정을 검찰로 부터 통고 받았습니다.

대구에서 스님을 괴롭히려고 P.D수첩까지 동원하여 큰스님을 매장하려 했던 허황된 고소사건, 김순자 고소사건, 이미영의 고소사건이 모두 죄 없음을 검찰에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사이비(이교도) 매스컴 종사자와 몇몇 승려들이 큰스님을 매도하고 있음은 큰스님의 자비 인욕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는 날, 큰스님을 매도했던 자신들의 입지가 문제되겠기에 끝까지 큰스님을 악인으로 몰아 매장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스님의 가르침대로 남을 다치게 하지는 말아야 하겠으나 큰스님의 명예는 회복시켜 드려야 하겠기에 우리 제자들은 『나의 스승 석용산스님』이란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큰스님과 인연닿아 오시면서 보고 느끼고 배우며 감동스러웠던 부분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여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글이 채택된 분에게는 상품과 소정의 고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뜻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으로, 회주 큰스님께서 진정 이 시대의 인욕 보살임을 만천하에 알리고 바른 것을 세상에 바로 보이는 진정한 불자님들이 되는 인연 되시기를 발원합니다.

— 아 래 —

■접수기간 : 1999년 9월 8일 ~ 9월 22일 까지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원고매수 관계없음)
■형　　식 : 시, 수필, 신행수기, 단편등 (형식은 상관없음)
■접 수 처 : 도서출판 열린마음·열린세상. 공덕원(대구,부산)종무실. 우편으로 접수(주소문의)
■문　　의 : 도서출판 열린마음·열린세상 ☎(051)627-5498
대구포교원 ☎(053)741-0077. 팩시. 741-0066
부산포교원 ☎(051)625-2253. 팩시. 623-3946

지장불교 근본도량 사회복지법인 공 덕 원
문도대표 석효선·석지광·석효림
신도대표 장난주·이대등명
사회복지법인 임직원 일동
합장